2021년 7월 4주 |

키움 ESG Week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Weekly Issue:
Fit-for-55 패키지 채택, 유럽 그린딜로 향하는 여정

- **지난주 7/14일 발표된 EU 집행위의 'Fit for 55 Package'는 2019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액션플랜 중 하나**. 유럽집행위는 이날 법안 발표를 통해, "Fit-for-55 패키지 시행은 유럽이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고, 유럽그린딜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

- 또한 이번 패키지를 통해, 1)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2) 공정하고 친환경적이며,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선언

-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혁 및 기존 EU-ETS 강화, CBAM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에너지 효율성 개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유럽그린딜 목표와 일치하는 과세 지침 개정, 탄소 누출 방지책** 등

EU집행위, Fit-for-55 패키지 발표

자료: European Commission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7/12~16)

▲ 기후 및 환경 관련

7/12	**U.S. Treasury's Yellen to push development banks to step up climate financing effort** - 옐런 美 재무장관, 11 일(현지시간)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에 파리협약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관련 투자 확대를 촉구. 그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개발은행들이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기후 친화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옐런 재무장관은, 다자개발은행 대표들을 소집해 가능한 빨리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파리협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 언급. 또 향후 개발도상국들이 민간 업체들로부터 기후협약 목표나 지속가능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 - 현재 옐런 장관은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미국 금융안정감동위원회 내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美 재무부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후 리스크 공시 방안 개선책을 모색 중 https://reut.rs/3eaaART
7/12	**Handful of cities driving urban greenhouse gas emissions – study**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추이 분석 결과, 25 개 도시에서(23 개가 중국, 나머지는 모스크바, 도쿄) 전 세계 53 개국 167 개 도시에서 배출되는 기후 온난화 가스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또한, 1 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부유한 지역의 도시들에서 배출되는 양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도심 지역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Frontiers in Sustainable Cities) - 또한 68 개 도시(대부분 선진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으나, 실제 진행 상황을 추적한 42 개 도시 중 30 개 도시만이 감소를 보인 것으로 집계(대부분 유럽과 미국) -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이상 상승했으며 전 세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위기. 한편, 일각에서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고 도시 별로 배출량을 보고 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게다가 유럽과 일부 선진국들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늘리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지만, 한참 발전 중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상당한 양의 배출량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마지막엔 아프리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 https://reut.rs/2U747jW
7/12	**Central banks are key to countries' climate goals – and Ukraine is showing the way**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관련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흥국 내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지난해 세계은행과 함께 지속가능은행 네트워크(SBN)에 가입하여 ESG 리스크를 개선하고,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자금 유입을 지원했고, 올해는 녹생금융시스템 네트워크(NGFS)에 가입하면서 친환경 금융 확대 및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발하는 등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일찍이 행동에 나섬 - 세계은행 동유럽 지사장 Arup Banerji, '21 년 2 월 개최된 Market Readiness Project 파트너십 최종 컨퍼런스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대기오염, 가뭄, 고온 및 폭염, 홍수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그 어느 때 보다 취약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2030 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투자 기회가 $23 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우크라이나는 약 $730 억 수준의 잠재적 투자 기회 발생할 것으로 전망. 특히 올해 말에 개최되는 COP 26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또한 이 약속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yPKxY7
7/14	**캐나다 정부, 2030 년까지 배출량 40~45% 감축 목표 유엔에 제출** - 13 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2030 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NDC 상향 목표를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 - 캐나다 환경부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 년 대비 23% 상승한 475 억 5200 만 톤을 기록. 이 가운데 캐나다는 7 억 2500 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2005 년 대비 약 2.8% 상승한 수치)해 세계 10 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극. - 이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NDC 제출과 함께 전략혁신기금을 통해 향후 5 년간 탈산소 미래기술 개발과 클린테크 육성에 약 30 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탄소세에 대한 최소 가격을 2023 년부터 2030 년까지 매년 톤당 15 달러씩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 https://bit.ly/3ekYci7
7/14	**EU proposes sweeping 'Fit for 55' emissions reduction plan** - EU, 2030 년까지 1990 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계획이 담긴 'Fit for 55' 공개, 이날 발표된 제안은 세부 사항과 목표와 관련하여 EU 각국 정부 및 유럽 의회로부터 향후 2 년 동안 심의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예정 - 이번 제안에 따르면, 2035 년부터 EU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여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 됨. 해당 시점부터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탄소 배출이 '0' 수준인 차량만 제조 가능하며, EU 는 전기차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폐지할 계획 - EU 전체 탄소 배출의 1/4 을 지상 교통 및 운송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 및 해운선박 부문도 이번 제안 내용에 포함됨. 2035 년까지 전체 비행의 80%는 지속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로만 운행될 것이며, 이는 현재 사용되는 화석 연료 대비 탄소배출량이 80% 낮은 수준. EU 국가 항구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2050 년까지 최소 80%를 저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함 - 이 외에도 항공 및 해운 부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된 탄소배출거래시스템(ETS)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품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가장 많이 오염된 연료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s://bit.ly/3inz5wj

7/15	**Metals recycling to be a key plank for cutting emissions** - 향후 20년간 지구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낮추기 위해 알루미늄 3.6억 톤, 구리 9천만 톤, 니켈 3천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특히 알루미늄, 구리, 니켈은 전기차 생산의 핵심 소재로 향후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Wood Mackenzie) - 한편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ium) 1T 생산 작업에서 평균적으로 17T의 탄소가 방출되고, 2차 혹은 재활용 알루미늄에서는 0.6톤의 탄소가 배출 되는 것으로 집계. 구리 채굴은 톤당 2.3~2.5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재활용 금속 1.5톤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1.65톤의 탄소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 - 금속 채굴 및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활용 및 대체재를 찾게끔 압력. 결과적으로 금속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대체재 사용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https://reut.rs/3hFIgsX
7/15	**EIA says U.S. 2020 coal output lowest since 1965** - 美 에너지 관리청(EIA),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글로벌 석탄 수요 감소로 2020년 미국의 석탄 생산량이 196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힘. 2020년 미국 석탄 총 생산량은 5.35억 쇼트톤(short tons)으로 이는 2019년 7.06억 쇼트톤(short tons) 대비 24% 감소한 수준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석탄 수요 절감 ▲코로나 19 이후 미국 광산들의 장기 셧다운 돌입 ▲2020년 4월 석탄 수출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 한편 석탄 화력 발전량 또한 전년 대비 20% 감소했는데 이는 재생 불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감소, 천연가스 가격 절감으로 인한 석탄/화력 발전의 경쟁력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 https://reut.rs/3kswqE2
7/16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본격 시작** -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 16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을 본격 시작.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중국에서 탄소를 특히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전력 기업(대형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각자 배출권을 배정했는데, 해당 기업들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전력기업 2225곳으로 구성 - 탄소배출권을 배정받은 전력 기업 가운데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거래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이 모자란 기업에 팔 수 있음. 이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직후 이뤄진 첫 거래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52.78 위안(약 9300원)으로 형성 - 자오잉민(趙英民) 중국 생태환경부 부부장,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중국이 2030년 이전에 탄소 최대 배출량을 달성하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방법이라고 설명 https://bit.ly/36XALYh
7/16	**한국거래소, 'KRX 기후변화지수' 3종 발표...기후변화 대응 ESG 투자 활성화** - 한국거래소, 7월 19일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KRX 기후변화지수' 3종을 발표하기 시작. 이번에 발표하는 KRX 기후변화지수는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 300 기후변화지수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으로 구성 -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 300 기후변화지수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점수를 코스피 200과 KRX300 편입 종목에 각각 적용한 지수이며,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는 저탄소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성장 대형주를 많이 편입하여 코스피지수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지수 - 한국거래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는 지난 5년간 코스피지수 대비 누적 초과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https://bit.ly/3wXSysV
7/17	**[단독]정부, EU 발 탄소국경세 적극 대응…유럽과 탄소가격 격차 축소 모색** - 정부, EU의 탄소국경세 과세 면제국 지위를 얻기 위해 유럽과의 탄소 가격 격차를 줄이고 무료 탄소배출권 대상 업종을 조정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 일단,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고려할 때 과세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상품에 과세하는 제도로, 2026년까지 보완한다 해도 한국의 탄소배출 규제가 EU보다 여전히 약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탄소세를 부과해 한국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것 보다 국내에서 내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적지 않음 - 정부 관계자는 16일 '탄소국경세 관련해 산업부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이나 그린뉴딜, NDC 상향 등을 강조하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해 보려 한다'고 밝힘 https://bit.ly/2UNB44V

▲ 기타/통합

7/12	**Banks and asset managers in ESG hiring spree as investor demand grows** - 영국 금융 서비스 내 ESG를 담당하는 고위급(senior level) 일자리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50% 증가, 주니어 직급(Junior Level) ESG 담당 일자리 또한 2018년 118개에서 60% 상승한 196개 집계 (New Street Consulting Group) - 도이치뱅크는 두 자릿수의 대규모 인원을 채용해 모든 사업부에 걸쳐 근무하는 ESG 우수 센터를 발족했고, Citi, 골드만삭스 HSBC 및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ESG 및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금융에 초점 맞춘 팀을 신설 - 또한 유럽에서는 2021년 첫 3개월 동안 ESG 펀드로 €1,200억 투자자금이 유입,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 유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51%) (Morningstar). 북유럽과 네덜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및 네덜란드 연기금의 81%가 이미 그린 본드에 투자를 진행했고, '21년 1~5월 투자자들은 $540억을 ESG 채권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 (2020년 연간 $680억 투자) - 이처럼 ESG는 현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 있어 자금 조달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투자자와 규제 기관의 ESG 관련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ESG 지표 및 ESG 공시는 비즈니스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잡음 https://bit.ly/3yRAmIS
7/14	**More than 150 companies urge U.S. Congress to pass voting rights act** - 美 민주당 투표권 확대 법안인 '국민을 위한 법'(For the People Act)과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법'(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을 도입 시도.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들의 통과 교착 상태 - 애플, 베스트 바이, 펩시코를 포함한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美 의원들에게 투표개혁법 도입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 기업들은 서한을 통해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표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우리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덧붙여 Chip Bergh 리바이스 CEO는 서한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에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의무가 있으나, 만약 이 나라의 모든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동등하며 안전하게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https://reut.rs/2UQgDnN
7/16	**미국기업 임금격차는 299배 vs. 한국기업은 10배** - 미국 내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서 공개한 연례 '경영진 보수감시 보고서'(executive-paywatch)에 따르면,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CEO는 지난해 평균 1550만 달러(약 178억원)의 보수를 받아, 지난 10년간 매년 26만달러(2억 9000만원)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 반면 2020년 평균 생산직과 일반 직원들은 4만 3512달러(4900만원)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57달러(100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 - 업종별로 보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종은 741대 1로 가장 임금격차가 컸고, 전력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97대 1로 격차가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의 경우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임원과 직원의 임금 격차는 4~10배인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미등기임원은 직원 연봉의 4.4배 높았고, 등기임원은 직원에 비해 10.7배 수준으로 집계. 업종별로 보면, 유통과 IT 전기전자, 서비스 부문에서 임직원의 연봉 격차가 컸고, 조선 기계 설비 및 여신금융, 공기업 등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않은 것으로 분석 https://bit.ly/3wLE7be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기업 ESG 동향 Update (7/12~16)

▲ 기후 및 환경 관련

7/12	**BlackRock CEO calls for stronger climate finance plan at G20 meet** - 래리핑크 블랙록 CEO, 지난 주말 G20 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기후변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은행과 IMF가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맞춰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전 세계가 생태학적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50조 규모의 투자 기회 제공한다고 언급 - 먼저 민간 기업들에서도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 다음으로 정부가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 하지 않으면 불평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세계은행과 IMF 같은 글로벌 기간들은 민간 자본이 신흥 시장의 클린에너지 전환 자금을 지원토록 장려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주장 https://reut.rs/2U5zVFK
7/12	**Sovereign asset managers raise ESG focus in wake of COVID-19 – Invesco** - Invesco 자산운용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탄소 배출에서 불평등 이슈에 이르기까지 ESG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에 따라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의 약 1/3이 자사의 ESG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중요도가 커졌다고 답변 - 중앙은행 전체 응답자의 63%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느껴졌다고 답변했고, 대략 절반의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이 통화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고 응답 - 지난 주 ECB는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 변화를 더욱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국부펀드 설문 응답자들 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부펀드 설문 응답자의 52%는 ESG 정책을 채택한 동기로 수익률 개선을 손꼽았는데 이는 리스크 감소라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그리고 국부펀드 설문 응답자의 57%가 현재 시장이 기후 변화의 장기적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 https://reut.rs/2U4db94

7/13	**MSCI, 9000 개 기업 넷제로 기후공약 검증 해봤다** - MSCI 가 공개한 MSCI 넷제로 트래커 보고에서 따르면, 넷제로 공약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상장기업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 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 MSCI 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목표인 1.5 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5 년 8 개월 안에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력 통제해야 한다고 경고 - 이번 조사 결과 Coal India, 산시석탄화학공업, 중국국가건설 엔지니어링 등 인도와 중국에 기반을 둔 국영상장기업과 미국계 정유사인 PBF 에너지 등이 탄소 다배출 기업 중 전혀 공시를 진행하지 않는 최악의 기업 리스트에 올랐으며, 명단 내 10 대 기업 중 7 개 기업이 중국계로 최다 기록 - 비록 기후 리더그룹 사이에서도 공시 간 큰 격차가 존재했지만 P&G,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 양조회사 앤하이저 부쉬(Anheuser-Busch), 노르웨이 최대석유회사 에퀴노르, 중국자동차회사 BYD 등 15 개 기업이 기후 리더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 https://bit.ly/3r9Pjx5
7/14	**폭스바겐-에넬엑스, 이탈리아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세운다** -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과 에너지 회사인 에넬엑스, 이탈리아 전역에 전기 자동차 고전력 충전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합작 회사인 충전 포인트 운영자(CPO)를 설립한다고 발표 - COP 충전 네트워크는 도심과 주요 도로 및 외부 고속도로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모든 제조업체의 모든 전기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음. 고출력 충전소에서는 중형 차량의 경우 20 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 됨. 폭스바겐은 향후 전 세계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에넬엑스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약 700 개소에 3000 대 이상의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함 https://bit.ly/3z7ZYuN

▲ 기타/통합

7/12	**ESG 경영에 꽂힌 금융지주 회장들, MZ 세대와 소통 강화** - 'MZ 세대'들은 기업의 미담이나 악행을 SNS 와 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ESG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 ESG 경영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 MZ 세대는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고, 그린워싱 등이 드러날 경우 기업에 치명타를 가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Z 세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ESG 기업들에 요구되는 시대 - 시중은행들은 MZ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MZ 세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MZ 세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환경과 사회, 주주 및 고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ESG 경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디지털네이티브인 MZ 세대가 그룹의 대전환, 대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 것을 강조. 한편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선언한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 생명의 숲 3 호 조성 사업'을 위한 기부금도 전달 https://bit.ly/3hWSvbb
7/12	**ESG 외친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 예산 400 억 감소** - 은행연합회의 '2020 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총 1 조 919 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9 년 1 조 1359 억원보다 약 400 억원 줄어든 규모. 5 대 시중은행 중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증가한 곳은 KB 국민은행(1811 억원->2025 억원)과 NH 농협은행(1592 억원->1648 억원)에 불과 - 사회공헌활동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5849 억원, 53.6%), 지역사회·공익(3335 억원, 30.5%), 학술·교육(968 억원, 8.9%), 메세나·체육(661 억원, 6.1%), 글로벌(59 억원, 0.5%), 환경(47 억원, 0.4%) 순으로 은행과 관련이 큰 서민금융과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등 전통적인 사회공헌사업분야가 대부분(99.1%)을 차지 https://bit.ly/3hXcQ05
7/14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등 8 개 기업 ESG 등급 한단계씩 하락...KCGS, 등급 조정**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등급위원회 개최해 8 개 기업의 ESG 통합등급 낮췄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A 등급 ☞ B+ 등급), ▲삼성전자·고려아연(B+ 등급 ☞ B 등급) ▲HDC 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 IDT·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센트럴인사이트(B 등급 ☞ C 등급)로 하향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모두 중요한 법적인 이슈가 공통적으로 발생 - 통합등급에서 조정은 없었지만, E 와 S 와 G 부문에서 부문별로 등급이 조정된 기업도 8 곳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 불공정 마케팅과 경쟁사 사업방해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GS 리테일 등이 이에 해당 https://bit.ly/2ULW0cF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7/12~16)

▲ 주식 및 펀드 시장

7/12	**Hedge funds question how green investing will impact assets** - Intertrust 그룹에서 100명의 헤지펀드 CFO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ESG가 투자 프로세스에 포함될 시 AUM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29%는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 또한 CFO 49%는 ESG가 업계에서 더욱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30%는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등 시각차가 존재. 대조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CFO 들은 훨씬 낙관적인 답변 결과를 보였는데, 해당 지역의 3/4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ESG 투자로 AUM의 증가를 예상 - 또한 CFO들은 향후 5년 동안 ESG 투자 공시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중 1/4는 2026년에 이르러서는 투자자들이 ESG 투자 성과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 혹은 매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답변. 또 다른 1/4 응답자들은 공시가 매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BaKV5H
7/17	**ESG funds are lagging the S&P 500 — why that's good news if you own them**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 허가 취소 ▲기후 이슈 전담 고위 행정부 직책 2개를 신설하는 등 ESG 문제에 초점 맞춘 행보 지속. 그 결과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기록적인 자금 유입. 다만, 최근 일부 주식형 ESG 펀드들은 미국의 광범위한 시장에 익스포저 제공하는 상품들 대비 언더퍼폼. 예를 들어 올해 1월 20일(바이든 취임)~6월 30일 ESG 팩터를 기준으로 종목 선별하는 FTSE4Good U.S. Select 인덱스 +11.6%, 동기간 S&P 500 +12.3% 기록. 또한, 글로벌 증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MSCI ACWI Sustainable Impact 인덱스는 수익률이 1% 채 되지 않는 반면, MSCI All-Country World 인덱스는 8.5% 상승. 이러한 차이는 에너지 섹터에서 더 극명했는데 '21년 1월 20일 ~ 6월 30일 S&P 500 에너지 섹터 종목들은 25% 이상 상승한 반면, S&P Global Clean Energy 인덱스 내 지속가능 기업들(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등)은 25% 가까이 하락 - 그러나, 이 같이 사람들의 신념과는 대조되는 ESG 투자의 성과는 사실 예상된 바. 다음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면, ESG 투자가 정상 궤도로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음. 1) 평균회귀: ESG 투자 또한 다른 종목들처럼 밸류에이션 리스크 및 평균회귀(Reversion to the mean)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저조한 실적은 어느정도 예상될 수 있었음 (6월 말 기준 과거 5년 간 ICLN은 19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XLE는 동기간 2.83% 하락) 2) 시장의 반직관적 성격: 역사적으로 증시는 전통적인 통념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유하는데 특히 정치와 관련되어 있을 때 예측이 더욱 어려움.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오바마 재임 시절의 규제를 철회시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번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에너지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의 임기 동안 거의 100% 상승한 후 트럼프 정부 하에서 30% 하락. 반대로 총기 관련 기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락할 것 같았으나, 총기 기업 Sturm Ruger & Co는 오바마 취임 기간 동안 740% 상승했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38% 하락하며 S&P 500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결과적으로 ESG 투자는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성과 창출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은 현실적일 필요가 있음. ESG 투자 또한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지만, 부진한 시기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이 가운데, 최근 ESG 상품의 저조한 성과는 ESG 투자가 어떠한 속임수나 묘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시장 내 다른 주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있음 https://on.mktw.net/2TlhH2Q

▲ 채권 시장

7/12	**농협손해보험, ESG 채권 1000억 규모 발행… 태양광사업에 돈 쓴다** - NH농협손해보험, 1000억원 규모의 ESG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예정. 이번에 발행하는 ESG 채권은 10년 만기 무보증채권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세부 사항을 결정한 후 19일 발행될 예정 - 농협손보는 조달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분야와 일자리창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투자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 https://bit.ly/3wAFmtJ
7/14	**ESG Bond Sales Sprint to $1 Trillion as Investors Force Change** - 글로벌 ESG 채권 발행이 올해 처음으로 $1조 돌파할 것으로 전망.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 발행된 ESG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의 규모가 $5,750억을 돌파했고, 이는 2020년 전체 발행량보다 약 $1,000억 많은 수준. 하반기에는 약 4,230억 규모의 ESG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 (Bloomberg) - 신규 채권은 하이일드 채권과 관련 증권 상품들로 판매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ESG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차입 비용(borrowing costs)이 증가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 시장의 규모가 올해 $1,5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현재 글로벌 SLB 매출액은 '21년 YTD 기준 $728억으로 사상 최고 기록 달성 (Marilyn Ceci, JP 모건 ESG 채권 시장 글로벌 담당자) - Citi 그룹은 현재 ESG 부문에서 전 세계 선두에 나서고 있는 유럽에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상반기까지 발행된 IG 등급 회사채(Euro 표기) 중 26%가 ESG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동기 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 - 비록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폭되고 있지만,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 업계는 정크본드, 증권화 상품(securitizations), SLB 등의 장기 성장 기회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 https://bloom.bg/36IikXh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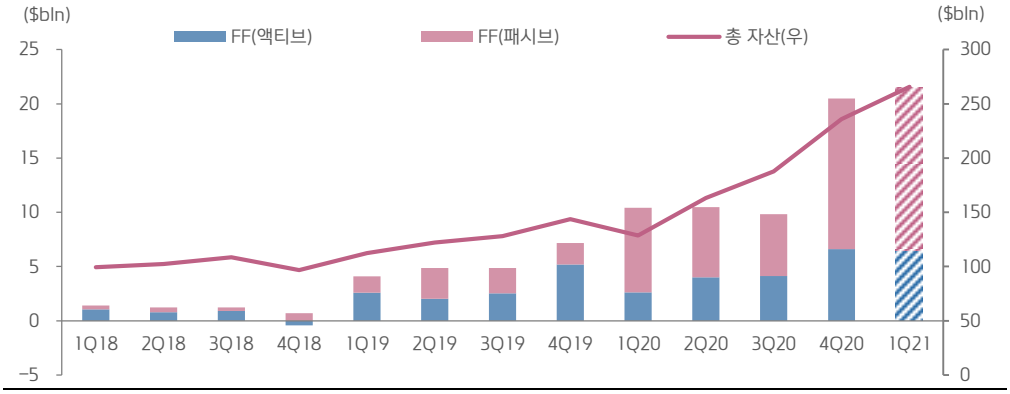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 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7 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 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 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 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 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유럽 기후법 승인	- 2050 년까지 EU 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 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 년까지 1990 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 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 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 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 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 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됨. 이 외에도 2035 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 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 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 분의 1 를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 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 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 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 월 12 일에 공포되어 6 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탄소중립 위원회, 2050 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향과 함께 10 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 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 월까지는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중-EU 택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택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 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 년 11 월에서 1 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 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한국	K-택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마련. ESG 中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이르면 9 월, 늦으면 연말로 연기
연내	한국	ESG 포털 구축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 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 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 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ASEAN 택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택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통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 명으로 구성된 택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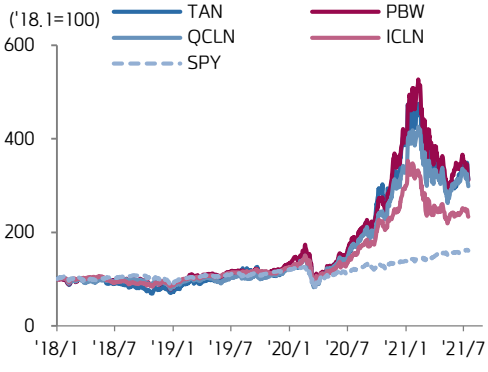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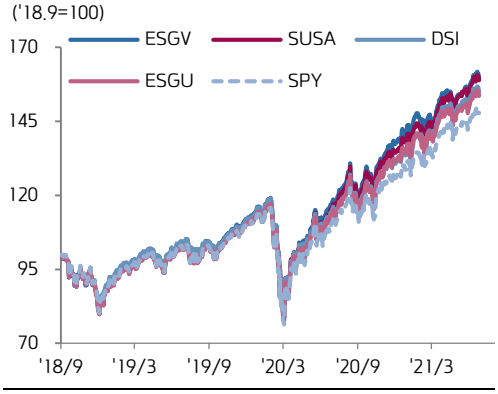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3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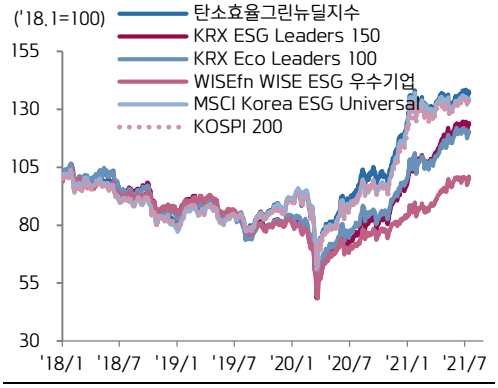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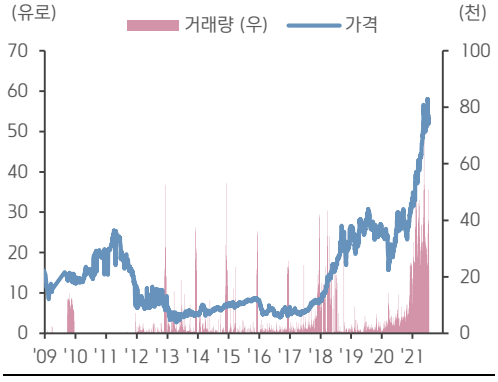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ESG	0.15	19,039.0	-1.0	+4.0	+3.5	+15.2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ESG	0.25	7,835.3	+0.1	-1.1	-0.5	+4.6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ESG	0.20	6,020.2	-1.6	-0.3	-1.0	+7.5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46	5,834.4	-4.8	-1.4	-7.2	-21.7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699.9	-1.2	+3.8	+3.1	+14.5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701.9	-0.4	+4.0	+3.8	+17.0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643.6	-0.5	+4.3	+3.7	+16.6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430.8	-0.8	+4.2	+4.0	+16.7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329.8	-0.7	+3.8	+3.4	+16.5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9	3,219.4	-8.6	-2.2	-5.7	-21.5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0	2,528.2	-6.5	-3.6	-5.4	-11.9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314.5	-0.9	-0.2	-0.3	+7.0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70	1,864.5	-8.2	-8.4	-8.5	-22.2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730.7	-0.1	+5.6	+5.4	+17.5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399.1	-1.1	+3.6	+3.7	N/A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390.3	+0.2	+0.5	+1.4	-1.6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183.1	-0.8	+3.8	+3.4	+15.2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079.2	-0.4	+4.7	+3.2	+16.9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52.9	-0.1	+0.1	+0.1	-0.6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47.6	-0.6	+2.7	+1.2	+14.6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9	1,003.7	-0.1	+4.2	+5.2	+16.8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973.8	-4.5	-1.8	-3.5	+12.3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950.9	-4.4	-1.9	-3.3	+12.0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944.2	-3.2	-0.2	-2.1	+13.4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5	903.1	-7.1	-5.1	-9.0	-15.3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91.8	+0.2	-0.2	+0.3	+7.3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37.8	-1.1	+2.0	+1.5	+11.5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788.4	+0.2	+0.5	+2.6	-1.7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778.8	-1.0	+4.3	+3.9	+14.8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655.5	-0.8	+4.2	+4.0	+16.4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599.1	-1.7	-0.4	+0.2	N/A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536.1	-1.4	+3.8	+19.2	+44.6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49	509.5	-2.1	-0.4	-0.7	+4.0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82.1	-0.7	+3.3	+3.1	+15.5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51.9	-0.5	+4.3	+4.1	+15.2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70	419.8	-2.8	+2.2	+1.9	+12.7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03.4	-4.7	-2.1	-1.4	-1.5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47	402.9	-2.6	+0.3	-0.4	+11.0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75	399.1	-6.0	-3.5	-7.5	-17.8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0	382.7	-4.0	-1.9	-7.8	-11.0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45	369.2	-6.5	-3.1	-9.2	-11.1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41.8	-2.3	+2.8	+0.8	+8.8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314.8	+0.2	+0.7	+1.2	-1.3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298.0	-0.0	+3.8	+6.1	+16.1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4.6	-3.3	-1.1	-1.1	-7.9

자료: Bloomberg, 주) 2021-07-16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291.6	-1.2	+3.4	+3.1	+15.7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	261.8	+0.2	+0.4	+0.9	-2.3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60.1	-0.9	+4.0	+2.7	+13.8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248.3	-0.9	+4.2	+4.0	+16.3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20	247.3	-0.9	+3.7	+3.7	+15.7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39.0	-2.1	+1.5	+0.0	+18.6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37.4	-1.4	-0.3	-1.0	+6.9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72	220.7	-3.3	+4.1	+5.7	+13.0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16.1	+0.6	+1.2	+1.3	-1.5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06.4	-3.1	+3.7	+10.9	+10.2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05.6	+0.0	+0.6	+1.2	-0.9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0.9	-3.4	-0.9	+14.5	+4.2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89.4	-2.0	-1.5	-1.2	+7.3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188.7	-1.6	+0.5	-0.7	+6.6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83.4	+0.2	-1.2	-1.7	+3.4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79.3	+0.1	+0.4	+2.4	-2.0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환경친화적,ESG	0.42	176.1	-1.5	+2.3	+2.5	+13.2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환경친화적,ESG	0.32	166.3	-1.1	+3.8	+3.1	+15.5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49	165.7	-2.5	+1.3	+0.5	+11.4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63.0	-1.2	+3.2	+4.7	+12.4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53.0	-0.0	+0.0	+0.0	-0.1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50.5	-0.7	+4.4	+3.9	+15.5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42.2	-7.2	-2.5	-9.2	-17.5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32.3	-1.4	-0.1	+0.1	+7.7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5	131.6	-1.7	-0.1	-1.0	-11.6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7.0	-2.2	+0.9	+1.6	+9.2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4.1	-1.1	+1.8	+1.4	+11.1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ESG	0.35	112.7	-0.2	+0.4	+0.5	-0.5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08.4	+0.3	-0.5	+1.2	+8.1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6.3	+0.1	+0.4	+1.1	-1.5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5.2	-0.9	+3.2	+2.2	+15.2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94.1	-0.2	+0.2	-0.3	-0.9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83.8	-1.1	+2.4	+1.1	N/A
XVV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ESG	0.08	78.1	-0.8	+4.1	+3.8	+15.9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ESG	0.49	75.8	-1.4	+3.1	+3.6	+14.7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1.8	-0.7	+2.2	+2.4	+16.8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기후변화,환경친화적	0.60	57.1	-1.2	+3.3	+2.6	+14.0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7.8	+0.2	+3.5	+3.8	+14.3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5.1	-1.0	+4.5	+4.4	N/A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4.7	+0.2	-0.7	-0.2	+7.8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4.6	-7.5	-6.6	-18.8	N/A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2.2	-6.2	-5.1	-13.5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1.9	-1.4	+2.8	+2.3	+13.4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 Sovereign ETF	ESG	0.35	30.7	+0.3	+0.4	+1.2	-2.4
XJ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ESG	0.12	30.6	-3.2	+0.3	-4.0	+13.2

자료: Bloomberg, 주) 2021-07-16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1	+0.1	+0.5	+2.5	-1.8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9.8	-1.1	+3.4	+3.9	+13.9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6.3	-0.9	+3.5	+3.6	+16.0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6.1	-0.8	+3.1	+2.2	+14.9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3.4	-0.1	+0.4	+0.6	+0.7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2.7	+0.2	N/A	N/A	N/A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0.4	-1.2	+2.4	+0.9	+17.9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20.2	+0.0	+3.8	+2.9	+12.4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0	-1.0	+1.1	+1.3	+9.1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4	-1.3	-1.1	-1.3	+5.8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8.1	-2.3	+3.6	+4.6	+7.5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	17.1	-0.2	-1.8	-1.4	+6.2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4.7	-5.1	+0.4	-0.0	+6.1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4.3	-2.7	+0.1	-4.1	+7.8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4.2	+0.4	+1.3	-1.0	+4.9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6	-0.1	-1.0	+2.0	+7.9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3.2	-0.2	-2.3	+0.9	+5.5
XJ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1.3	-4.2	-2.4	-4.9	+13.6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4	-3.3	+0.7	-3.5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1	-4.5	-2.5	-3.9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0	-1.1	-1.6	-0.9	+6.7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9.9	-1.9	+1.3	+0.5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6	-1.6	+3.8	+2.4	+10.0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1	-4.6	-1.0	-2.8	+19.2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5	-0.9	+3.5	+5.2	+18.4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0.87	8.2	-3.4	-0.2	-5.3	-1.8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2	+0.7	+2.6	-2.2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0.7	+0.8	+1.3	+6.5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7	-1.1	-0.5	+0.5	+8.5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6.8	-0.6	+4.5	+4.4	+15.4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6.6	-2.9	+1.4	N/A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4	+0.7	+1.3	+3.9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6	-0.2	+0.7	+1.3	+2.6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5	-1.3	-1.1	-1.7	+8.9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5	-1.7	+0.3	+1.5	+7.3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3	-1.9	+0.4	-0.1	+19.1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5.3	-0.8	N/A	N/A	N/A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0	-1.4	-1.2	N/A	N/A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0	-3.2	+1.2	-0.4	+3.2
LGBT	LGBTQ+ ESG100 ETF	ESG	0.75	3.3	-0.7	+3.9	N/A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3.2	+0.4	+4.0	+3.8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0	-1.4	+3.1	N/A	N/A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1.7	+2.1	N/A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0	-2.3	+1.4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8	-1.8	+0.6	+4.1	+20.2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1.6	-1.4	+2.9	+3.2	+17.6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6.2	N/A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7-16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https://bit.ly/3imCdsg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https://bit.ly/36uDxnC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https://bit.ly/3hfBREr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https://bit.ly/3gYwLJ2C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D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Jd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I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OCi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